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녹) 연중 제16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3년 7월 23일 (제2042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 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 사	주 일 미 사	오전 8시 / 11시
	평 일 미 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 사	고 해 성 사	미사 30분 전
	병 자 성 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 배 성 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지혜서 12,13.16-19

화 답 송 시편 86(85),5-6.9-10.15-16ㄱ(◎ 5ㄱ)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6-27

복음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 13,24-30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성가]	8시	입당 21	봉헌 220	성체 플룻 연주	파견 31		
	11시	입당 24	봉헌 210	성체 167, 157	파견 76		
연중 제16주일	7월 23일(일)		7월 25일(화)	7월 26일(수)	7월 27일(목)	7월 28일(금)	7월 29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유인웅 다윗					사목회
독 서	강신호 요한 김영선 안젤라	이기만 베드로 이진의 안젤라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장희숙 루시아					허홍숙 세실리아

■ **예비신자 모집 및 교리**

- 예비신자 모집/교리 신청: 7월 30일(일)
- 예비신자 교리는 8월부터 시작합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7월 29일(토) 11시 미사 : 사목회

■ **본당 신부님 비자 관련 한국 방문**

- 한국 방문 기간 중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7/22(토), 23(일) : 양필립 신부님
- 7/29(토), 30(일) :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몬트레이 성당)

■ **구역 모임 안내**

- 유니언: 7/23(일) 오후 1시 강실비아 댁
- 알라메다: 7/23(일) 오후 5:30 BB Bowl
- 리치몬/버클리: 7/29(토) 오후 5시 임석호 베네딕토 댁
- 캐스트로벨리: 7/29(토) 오후 5시 김현규암브로시오 댁

■ **황금빛인생 일일 행복크루즈여행**

- 날짜 : 9월 5일(화), 4시간, 베이지역 크루즈여행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한쪽 배우자가 70세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가능)
- 회비 : 없습니다.
- 점심 : 선상에서 우아하게 합니다.
- 모이는 시간과 장소: 오전 10시 30분까지
2394 Mariner square drive Alameda Ca 94501, 오세요.
- 크루즈여행노선: SF야구장, SF도심스카이라인, 금문교, 엔젤아일랜드, 알카트라즈, 트레저아일랜드, 베이브리지
- 신청마감일: 8월 20일(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취소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 : 황금빛인생위원 이선미에스더(오일공-구일구-육오육칠) 사목회총무 유인웅다윗(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율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육승주 아오스딩,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사아론조 발바라

■ **성경 통독**

- 7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1,1 - 43,33)
- 성경필사노트를 성물방에서 교환해가세요.

■ **미사전례복사자 모집**

- 미사전례복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이스라엘 성지순례(11월 8일 출발) 모임**

- 일시: 8월 13일(일), 오후 1시, 성당
- 이스라엘 성지순례 설명회 및 성지순례 참여자를 위한 이스라엘 성지 안내

■ **밥나눔 안내**

- 이번주 밥 나눔 없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 오일사칠)

■ **한국학교 개강준비 교사회의**

- 일시 : 7월 29일(토), 오후 12시
- 한국학교 개강은 8월 19일입니다.

■ **레지오 마리에 야유회**

- 일시 : 8월 6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Roberts Regional Recreation Area
10570 Skyline Blvd. Oakland, CA 94611
- 참가대상 : 레지오 단원/협조 단원 및 가족
레지오에 관심있는 모든 분

■ **하상회 여름캠핑**

- 일시: 8/5(토) 2 pm ~ 8/6(일) 12pm (1박2일)
- 장소: Mount Diablo State Park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제27차 북가주 성령대회 신청 및 회의**

- 8/12(토) 오전 8:30~오후 6:00 본당
- 북가주 성령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 * 위원장: 염명련 패트리샤(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 * 위원: 사목회장/부회장/총무, 총구역장, 평협회장, 성모회장, 밥봉사회장, 대건회장, 하상회장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안나요아킴회 때 밥봉사해주신 안나회, 사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크리스티나(7/24): 임은정, 전옥분, 신기수
- *안나(7/26): 박부기, 소화옥, 김영숙, 강신옥
구혜순, 황정희, 이순희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당신께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믿음 지녀야.

“나 누구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지어 주신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이께서 작품 하나는 잘 만들어주셨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 뭐 이런 걸 작품이라고 만드셨을까?’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찬찬히 놓고 살펴보면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그다지 믿어지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무런 흠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유는,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훌륭해서 작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작품인 것입니다. 작가를 만난다면, 그 작가의 작품 중 어느 한구석 이해 안 가는 곳이 있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믿음을 둘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크게 지닐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분 작품으로 더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대해 두고 있는 믿음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당신께로 불러주신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상대로 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로 가까이 오라고, 와서 함께 친교를 나누자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겐 마침내 가야 할 곳,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두해 전 여름 강원도 횡성에 있는 수도원으로 피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수도원 피정 집에 가면 식사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알아서 해먹기로 했죠. 첫날 도착해서는 짐을 풀고 바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읍내에 있는 가장 큰 마트를 소개받아서 피정 동안의 먹거리를 잘 사고 돌아왔죠.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맘껏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식사로 계란 프라이를 해 먹으려고 보니까, 식용유하고 소금이 없는 겁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팬스레 수녀님들께 폐 끼치기보다는 잠깐 마트에 가서 사오자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전날의 그 마트를 찾아가서 원하던 식용유와 소금을 사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는데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길눈이 어두운 편인데,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마트를 두 번이나 잘 찾아갔으니 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내비게이션 없이 돌아오다가 길이 험갈려서 좌회전해야 할 곳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살짝 당황했죠. 조금 더 가니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더군요. ‘아, 저리 들어갔다 다시 돌려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서는데 그 길 입구에서 있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입구!’ 조금 더 당황했지만, 그래도 돌려나오는 길이 있겠거니 하고는 계속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고 결국 고속도로를 타야만 했죠. 고속도로에서도 또 금방 갈림길이 나와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오른쪽 길을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비게이션을 켜더니, 수도원으로 돌아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25km를 더 가서 다음 출구에서 나갔다가 다시 반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계란 프라이 하나 먹겠다고 식용유 사러 나왔다가 왕복 백 리도 넘는 길을 돌아오게 된 거죠. 짜증도 났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경치 구경이나 하는 셈 치자” 마음먹고서는 터널도 두세 개 지나고 산 구경도 실컷 하면서, 그렇게 한 시간 길을 돌게 된 다음 피정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비록 배는 고팠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 그릴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더라도, 제게는 가야 할 곳, 피정집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고, 언젠가는 그곳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길눈이 어두워 겪었던 우스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을 가다 보면 때론 멀리 돌아가는 것도 같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잘못 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잘해서, 길눈이 좋아서 불안해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데려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유는,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데려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초대 받은 부르심에 응답해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안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탈출 19:4)

[가톨릭신문, 2017년 4월 23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51 명	163 명	214 명

주일 헌금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황금빛 인생	선교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희(8), 이재우(8), 이순희(7), 황정기(7-12), 조용숙(8), 정순자(7-8), 유윤미(7), 이상용(5-8), 설재훈(7-8)							이상용			김명환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7/23(일)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7/23(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주정희 마리아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이에스터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주임신부님	김정임 마리안나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김미나	김정임 마리안나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채줄리	이에스터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심연자 데레사	이영기 마테오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육승주 아오스딩	이영기 마테오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권영섭 요셉	이영기 마테오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스가족		생	권주선 다니엘	이영기 마테오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조우송 요안나	이영기 마테오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이영기 마테오	육아오스딩
	연	정미카엘	가족		생	천다니엘/아네스	민제노베파
	연	김마르코	가족		생	천다니엘/아네스	전데레사
	연	부홍신 마티아	가족		생	안아네스/박시몬	전데레사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생	발바라 부루스 아론조	전데레사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생	김정임 마리아	김엘리자벳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생	김영희 엘리자벳	익명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생	이성재 베드로	이베로니카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양수산나		생	이명숙 율리아나	권재복 마가렛
	연	John Blain	육아오스딩		생	유혜진 안나	권재복 마가렛
	연	John Blain	이영길 안드레아		생	황정숙 말피나	박정연 헬렌
	연	한서연 수산나	박헬레나		생	황정숙 말피나	황혜정 데레사
	연	한서연 수산나	김정희 유릿다		생	황정숙 말피나	김광석 베드로
	연	한서연 수산나	이영기 마테오		생	황정숙 말피나	라모란다 구역회
	연	한서연 수산나	김영희 엘리자벳		생	이바로/파트리샤 가정	천다니엘
	연	한서연 수산나	김찬곤 안드레아	7/29(토)	연	주봉진 요셉	가족
	연	한서연 수산나	류삼수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한서연 수산나	임유지 비비안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박영실 데레사	양수산나		연	John Blain	육아오스딩
	연	강인추	황혜정 데레사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김학철 요한
					생	Andy Kim	김학철 요한
					생	Eric Kim	김학철 요한
					생	Katherine Kim	김학철 요한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 요 한</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	--	--	--	--